



대학생의 분노조절능력 및 스트레스와 음주행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anger control ability,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지도교수 : 신정은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9조
 심지해 이수현 이주연 송민경
 박은숙 김은옥 안소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의 분노조절능력과 스트레스와 음주행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



- #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 #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 제공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대학생의 분노조절능력 및 스트레스와 음주행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2. 연구대상

G*Power 3.1
 충청북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26명 모집

3. 자료수집방법

2017년 9월 4 ~ 15일
 오프라인 설문조사

4. 연구도구

분노조절능력척도(MAI, 총 20문항)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총 10문항)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총 10문항)

5. 자료분석방법

SPSS / Window SPSS 21.0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test)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회적 특성

N=126

내용	범주	n(%)	내용	범주	n(%)
성별	남	65(51.6)	성적	상위권	35(27.8)
	여	61(48.4)		중위권	75(59.5)
학년	1학년	26(20.6)	종교	하위권	16(12.7)
	2학년	35(27.8)		무교	55(43.7)
	3학년	22(17.5)		기독교	53(42.1)
	4학년	43(34.1)		천주교	8(6.3)
전공	인문계열	27(21.4)	건강	불교	10(7.9)
	자연계열	12(9.5)		매우 건강함	34(27.0)
	공학계열	42(33.3)		건강함	64(50.8)
	보건계열	28(22.2)		보통	25(19.8)
	예체능계열	14(11.1)		나쁨	3(2.4)
	기타	3(2.4)		경제	매우 잘 산다
대인	매우 좋음	37(29.4)	잘 사는 편이다		33(26.2)
	좋음	62(49.2)	보통이다		71(56.3)
	보통	26(20.6)	어려운 편이다		17(13.5)
	나쁨	1(0.8)	매우 어렵다	2(1.6)	

2. 일반적, 사회적 특성에 따른 분노조절능력, 스트레스, 음주행태

N=126

		분노 조절 능력		스트레스		음주 행태	
		평균 ± 표준편차	F or t (p)	평균 ± 표준편차	F or t (p)	평균 ± 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	55.18±7.57	5.961 (.016*)	27.56±4.60	5.019 (.027)*	13.57±8.63	.168 (.682)
	여	57.77±5.86		28.98±4.20		9.72±6.83	
경제	매우 잘 산다	61.00±19.15	2.558 (.042)*	20.66±8.32	3.559 (.009)**	6.67±9.07	.353 (.841)
	잘 사는 편이다	52.45±4.72		29.15±3.32		12.09±7.83	
	보통이다	56.12±6.60		27.78±4.18		11.85±7.84	
	어려운 편이다	54.52±6.93		29.88±5.08		11.53±9.64	
대인	매우 좋음	53.59±7.25	7.003 (.00)***	27.29±4.93	.852 (.468)	12.24±8.88	.189 (.904)
	좋음	57.46±6.28		28.64±4.01		11.52±7.32	
	보통	51.19±4.86		28.73±4.76		11.23±8.67	
	나쁨	51.00±0.00		27.00±0.00		16.00±0.00	
	매우 나쁨	0.00±0.00	0.00±0.00	0.00±0.00			

3. 분노조절 능력, 스트레스, 음주행태의 상관관계

N=126

	분노 조절 능력	스트레스	음주 행태
분노 조절 능력	1		
스트레스	-1.75 (.050)*	1	
음주 행태	-2.39 (.007)**	.262 (.003)**	1

IV.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분노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음주행태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 분노조절능력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 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미하므로 연구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 #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동관찰, 면접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